

글로벌 우량 실물자산 투자기회 적극 확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글로벌 우량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네덜란드 연기금 APG와 파트너십을 맺고 최근 유럽 및 팬아시아 지역 공동투자를 성사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APG는 대형 글로벌 연기금 운용기관으로서 장기적 수익 제고를 추구하는 운용 철학을 공유하며 1년여 동안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방문 면담 등을 거치면서 공동투자 등 상호협력에 관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우량 투자처의 공동 발굴을 적극 진행한 결과 8월과 10월에 호주의 대학교 기숙사 시설과 포르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네덜란드 연기금 APG와 파트너십 유럽·팬아시아 공동투자 성사... 공동투자 기회 늘리기로

갈의 최대 고속도로 운영회사에 대한 50:50 비율의 공동투자를 각각 성사시켰다.

APG는 네덜란드의 최대 연기금 운용 전문기관으로, 자국의 공적 연기금인 APF 기금에 대한 운용을 비롯해 민간 교육, 건설, 에너지 등 각 분야 연기금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APG의 자산운용 규모는 약 698조 원(EUR 538 Billion)이다.

국민연금은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상

특히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취임 이듬해부터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를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등을 방문해 주요 연기금 및 운용기관의 수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세계 최대 부동산 투자자인 알리안츠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APG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물자산 공동투자를 성사시켰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리더 그룹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하여 공동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공통된 목표(Like-minded)를 가진 글로벌 대형 기관투자자와의 파트너

십을 통하여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규모 및 비용 측면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우량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글로벌 선도기관과의 협력적 교류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수익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로널드 뷔에스터(Ronald Wuijster) APG 대표는 "APG는 국민연금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단독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투자기회에 보다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올원뱅크서 연 5% 특판 적금 응모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이달 30일까지 모바일 플랫폼인 '올원뱅크'에서 세전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올원Five적금 사전응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원Five적금(총 4,000좌 한도)은 가입금액(월납입액) 2만원, 가입기간 12개월인 정액 적립식 정기적금 단일 상품으로, 매월 납입일에 자동이체시 다른 우대조건 없이 세전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올원뱅크 전용 특판 상품이다.

농협은행은 이벤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응모한 고객 중 4,000명을 추첨해 특판적금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미당첨고객 중 1,600명을 추첨해 ▲캐시백 5만원(100명) ▲캐시백 1만원(500명) ▲금리우대쿠폰(1,000명)을 제공한다.

사전응모 이벤트 당첨 고객은 개별적으로 전송되는 Push메시지 가입 링크를 통해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농협은행은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간척지 농작업에 적합해요'

농진청, 겸용 트랙터 개발... 추가 바퀴 달아 접지력 향상 미끄러졌을 때 엔진회전력 높이는 견인 제어시스템도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간척지에서의 밭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간척지나 습지 등 연약지반에 적합한 간척지 겸용 트랙터를 충남대학교, 산업체와 함께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간척지는 논, 밭과 달리 지반이 연약하고 물 빠짐이 나빠 비가 내린 뒤 기존 트랙터를 이용할 경우 견인력이 떨어진다. 또한, 기존 트랙터는 높이(노면-트랙터 바닥 사이의 거리)가 낮아 차체가 가라앉거나 잠기는 문제 등을 일으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간척지 겸용 트랙터는 노면과 트랙터 바닥 사이 거리를 500mm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뒤쪽에 탈부착할 수 있는 추가 바퀴를 달아 접지력을 높이고, 추가 바퀴를 뺐을 경우에는 논이나 밭 등 일반 포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미끄러졌을 때 엔진회전력을 높이고 작업기를 자동으로 승·하강시키는 견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 트랙터보다 미끄러짐은 7% 줄였고, 견인 효율은 7%, 견인 동력은 약 6kW 높였다.

이번에 개발한 트랙터는 90마력 엔진을 사용하나 견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100마력급의 엔진 성능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견인 제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견인 성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발농업기계화연구팀 최 용 팀장은 "이번 간척지 겸용 트랙터 개발로 간척지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트랙터의 작업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밭작물의 간척지 재배가 확대되도록 국내 간척지 등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소상공인단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 소상공인단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식),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 (사)한국산업융합협회(회장 신찬기), (사)한국화원협회(회장 박운호), (사)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김나철), 한국주유소운영협회(회장 이상장 김문식)는 노란우산 제도를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가입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 이래 현재 재적 가입자가 136만명, 부금액은 14.1조원에 달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예외,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는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납입한 부금에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납입부금 내 대출, 지자체의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전문가(경영지원단) 무료상담(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 및 대학병원 건강검진시 할인가격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박용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하여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의 농지(농업진흥지역안, 공무상 지목 논, 밭, 과수원)를 실거래가격(감정평가)으로 농지를 매입합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매입대상 -이농·전업,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만65세 이상 농업인 -농지저분명령을 받은 자(농지법 제11조)
-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안 공무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중 1필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지
- ▶매입가격 -일반농지: 감정평가(실거래가격) 범위 내 합의된 가격 -저분명령농지: 개별공시지가
- ▶농지임대 -임대대상: 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 농업인 등 -임대기간: 5년 단위로 임대 가능 -임대료결정: 공사에서 정한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협의

문의사항 : ☎ 560-1555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FB

정부, 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장기저축 상품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을 매월 정례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 확대 목적으로 글로벌 채권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개인투자용 상품도 새로 내놓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제시장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국제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예고되고 있어 국제 시장에서의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안 차관은 "중장기물 발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지표 금리를 안정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을 정례적으로 발행해 현재 3년물부터 50년물까지인 국고채 라인업(Line-up)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고채 구성 변경 등을 감안해 시장 수요에 맞게 연물별 발행비중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국제 물량에 따른 시장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공급 방안이다. 현재 3년·5년·10년·20년·30년·50년물로 구성된 국고채에 2년물에 추가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초장기물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0년물은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고채 구성 변경 등을 감안해 그룹별·연물별 발행비중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또 "그동안 읍신 방식 비경쟁인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IV)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발행 물량은 월별 발행목표 대비 실적에 감안해 결정되되 비경쟁인수 물량은 전체의 20% 수준 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발행 종목은 2·3·5년 단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중·장기물도 고려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규모 자금소요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발행 물량이 많은 종목의 분산 배치 등 국고채 입찰 일정도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수요가 적었던 개인의 국제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저축 목적으로 10년 이상 보유 시 금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제 상품도 새로 도입한다. 이는 만기(10년·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상품으로, 유통은 금시장이 열리면 필요시 중도환매는 허용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세제혜택도 주지만 개인 구매한다는 연 1억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검토 중이다.

소장 가치가 있는 액면가 미만 수준의 소액 실물 기념국채 발행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또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대효과, 리스크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기대효과로는 지수 추종자금의 국제시장 유입과 국제의 대외 신뢰도 제고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는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입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꼽았다. /뉴시스

'창업기획자' 등록 승인받아

전북도경제진흥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창업기획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한 초기창업자의 선발과 투자, 전문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일반 창업전문기관과 다른 것은 초기 창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진원은 최근 10여 년 간 꾸준히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왔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올해 상반기부터 새로운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준비해왔다. 정관개정부터 출자 및 인력구성 요건 충족, 시설 기준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경진원은 전국 경제진흥원 중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도내 유관기관 중에서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창업기획자로 등록했다.

이번 창업기획자 등록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인 투자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고창 상하농원 방문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20일 매일유업(주)에서 투자·운영 중인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을 방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한 관공용지 내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

양 청장은 상하농원의 농부마켓, 체험시설, 숙박시설, 공방, 동물농장 등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체험과 휴식을 결합한 운영 체계가 6차 산업의 성공사례답게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하농원 류영기 대표에게 "상하농원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새만금민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류 대표는 "코로나19로 관광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체험을 결합한 정주형 테마시설은 선풍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의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에 힘을 보탬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